

# 정세균 임기 연장 계파 갈등 번지나

(7월6일)

### 민주 주류 “지도부 흔들지 말고 전대 전까지 연장을”

### 비주류 “사퇴하고 임시지도부 구성해 전대 준비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임기연장 문제가 계파 갈등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의 임기만료 시점은 오는 7월6일. 따라서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 일정을 감안, 전당대회를 8월말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사정에 따라 당무회의의 의결로 임기 전후 3개월 내에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 당헌에는 전대를 연기할 경우 당 대표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것. 사실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 대표가 전당대회 수개월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과 전신인 열린우리당 등에서는 당 대표(또는 의장) 재선에 도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헌이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3개월을 가득 채운 10월 6일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비주류 측은 또 재보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직접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적 발상”이라며 “곧 꾸러지는 당 공심위에서 공천을 한 뒤 임시지도부가 추

위해서는 당장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비주류 핵심인사는 17일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대표직을 맡겠다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얘기”라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주류에 다소 유리한 전대 규칙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비주류 측은 또 재보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직접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적 발상”이라며 “곧 꾸러지는 당 공심위에서 공천을 한 뒤 임시지도부가 추

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류 측은 “지도부 흔들기”라며 전대 전까지 정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486 핵심 인사는 “지금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할 때”라며 “임시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전무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전대 물은 별도 기구인 전대관리위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절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중도파 3선 의원은 “일단 현 지도부가 재보선을 치른 뒤 임시지도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당대표 돼도 대통령에 불편만..”

### 친박계 초선 의원 회동서 불출마 의사 거듭 밝혀

7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의원들과 지난 16일 만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친박 의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전날 시내 한 식당에서 당내 부산지역 친박 초선 7명과 재선 의원 1명 등 8명과 2시간가량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 대해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초선 의원들이 박 전 대표를 모시고 저녁을 함께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 내부에서 박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자연스럽게 박 전 대표의 전대 출마 필요성에 대해 초선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거듭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가장 어려웠던 천막당사 시절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변하고 달라지겠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런데 지금 또 도와달라고 말하려니 입이 안떨어진다”며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 당 대표에 못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미디어법, 쇠고기 수입,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또 “당 대표를 맡아 정책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면 또다시 친이(친이명박)-친박 갈등으로 비칠 것이다. 이러한 내가 대표가 된들 대통령에게 불편만 주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친이 “상임위 부결돼도 본회의 표결처리”... 野·친박 반발

# 세종시 수정안 ‘산넘어 산’

여야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상임위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7일 간사 협의를 갖고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수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론 및 표결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되나, 현재 국토해양위 3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계 9명과 야당 12명 등 21명에 달해 부결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

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친이 직계 의원은 17일 “어차피 세종시법 수정안은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면서 “다만 상임위에서 사정시켜서는 안 되고 본회의에 부결시키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친이계의 움직임에 대해 당장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민심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과유불급”이라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데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록에 남아서 자신과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오기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친이계가 ‘세종시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경우 당내

친이·친박 간 갈등은 물론, 여야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그동안 상임위 부결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관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계파갈등을 또다시 유발할 소지가 많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않겠느냐”며 “하지만 본회의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만 실시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내주로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7·28 재보선 위법 행위 철저히 단속

### 광주 남구 등 8곳

중앙선관위는 7월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선거가 열리는 6개 시·도 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위장전입이나 부재자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시·도 광역 조사팀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하계 휴가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구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강원 태백·영월·평창 위 간부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7월13~14일 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15일부터 2주 동안이며, 현재까지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모두 49명이다. /연합뉴스

### 세종시 국회 처리 임박 10일만에 당무 복귀

###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광주 남구 보선 출마 선언

6·2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0일만인 17일 당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문제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표직을 비워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선거의 막중한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당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중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이 17일 광주 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오 총장은 “이번 광주지역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민주당 독점정치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겠다”며 “광주를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으로, 민생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2012년 광주부터 진보적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공무원

2010년 전남 교육행정직 122명 모집에  
본 학원 출신 88명 합격 (합격률 72%)  
10년 연속 광주·전남 최대 합격자 배출  
원우·전남 합격자의 약 70% 차지

**합격실명제**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

**특별이벤트1**  
(수강생 5명당 1명)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특별이벤트2**  
(수강생 5명당 1명)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 합격 후 100% 장학금 지급

**개강 7월 1일**

## PEET/MEET/DEET

약대대학    의대대학    치대대학

전대백 박사학위전문 강사진이 펼치는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적중예상 문제풀이**

동영상 강좌 제공

**기초이론만**

동영상 강좌 제공

**토익/토플**

동영상 강좌 제공

**개강 7월 5일**

## 서울고시학원

1514-4580  
sgsoul.co.kr

## 서울정철전문학원

www.seoulj.co.kr (광주) 051-7920

## MDPass 의학원

(광주) 283-5453  
mdpasa.co.kr